하나님의 새일과 열 가지 말씀(5)



ICE BREAK TIME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해지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나들이 장소는 어디신지 나눠봐요^^

- 나눔: 한 주간 받은 은혜 및 기도응답을 나누어요.
- 찬양: 찬송가 191장
- 기도: 구역원 중
- 성경봉독: 출 20:4-6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말씀중 지난 시간 살펴 본 바른 예배의 방식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2계명)은 특별히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개혁주의 신앙의 큰 지침이 되는 웨스트 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문 108. 제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1)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2)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3)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4)성례의 거행과 믿음이며,
5)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6)신앙적 금식,
7)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9)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 하며 반대함이며
10)각자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신32:46, 47, 17:18; 마28:20; 행2:42, 15:21, 10:33; 딤전6:13, 14; 빌4:6; 엡5:20; 딤후4:2; 약1:21, 22)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두 번째 말씀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신 32:46-47; 마 18:20; 행 2:42; 딤전 6:13-14).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감동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성경적인지 살피고 관습화된 비성경적 예배를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 갈수도 없으며(요 14:6),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배드릴 자격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자격이 되어 주시고, 속죄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와 감사는 성경에 제정되어 있습니다(엡 5:20;요 16:24; 빌 4:6).

2)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요 4:23-24; 엡 2:18).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알려주시고, 예배드릴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립니다.(신17:17-19,행15:21,딤후4:2, 약1:21-22,행10:33)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를 기뻐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을 예배의 의식으로 제정”하셨습니다(J.G. 보스 외, 웨스트민스터대요리문답강해, 385).

넷째로, 성례의 거행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립니다.(마28:19, 고전11:23-30) 성례(세례와 성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참여할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성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섯째로, 교회의 정치과 권징을 시행함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립니다(마 18:15-17; 16:19; 고전 5:1-13; 12:28).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죄악은 마치 누룩처럼 작은 부분으로 시작하여 온 교회에 퍼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권징을 실시하도록 하시사 거룩하고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권징이 실시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권징은 악을 행하는 자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징계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13:6).

여섯째로, 성역과 그것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립니다(엡 4:11-12; 딤전 5:17-18; 고전 9:7-15). “복음 사역 자체와 그것을 위한 교회 성도들의 후원은 말씀 안에서 지정된… 의무입니다”(J.G. 보스 외, 웨스트민스터대요리문답강해, 385).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시사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시는 일 등을 이루십니다. 사역자들을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민 18:6-7; 엡 3:7). 이들에 대한 후원과 섬김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봉헌함으로써 우리의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재정적 필요가 항상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신앙적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립니다(욜 2:12-13; 고전 7:5). 강제적인 금식이나 형식적인 금식은 종교적 억압에 불과하나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덟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함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립니다.(사 19:21; 시 76:11. 구약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소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진실히 서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그러나 "금식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와 서약은 계속해서 정해 놓고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 따른 용도로 제정되었습니다.", J.G. 보스 외, 웨스트민스터대요리문답강해, 387).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는 공 예배와 삶의 예배가 반드시 같이 거룩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합니다. 공 예배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한 몸의 지체임을 공간적, 시간적, 영적으로 확인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삶속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롬 12:1). 삶의 정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1)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됨을 믿고, 2)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3)자기 십자가를 지고, 4)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5)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의 제사를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의 공 예배에도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공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함은 어쩌면 삶의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나눔과 적용

1.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우리의 공 예배와 삶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4. 오늘 나눈 말씀을 삶속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적용할지 나누어 봅시다.

▷ 기도(기도제목 별지 참조)

▷ 찬양 및 구역봉헌 (20장)

▷ 주기도문

▷ 교제의 시간

셀원(구역)의 기도제목과 아래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인도자의 기도로 마칩니다.

- 2018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소서. 매일 삶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별, 지혜,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교회(예배, 교제, 사역, 훈련, 전도)되게 하소서.
- 참된 부흥(진실한 회개, 간절한 기도, 진리의 말씀, 성령충만)을 주시옵소서.
-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남여전도회의 큰 부흥을 주시고, 신설되는 청년부 부서예배 위에 성령의 폭발하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 교회사역위에 큰 은혜주소서(성장반, 교리대학, 성경대학, 제자훈련, 교회공사(1층,2층), 40일특별새벽기도회, 새생명축제, 체육대회, 바자회 등).
-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복음화, 인도와 열방 복음화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소서.
- 담임목사님 큰 은혜 주시사 성령충만, 성결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 건강, 가정 위에 복을 주시며 부교역자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소서.
- 교회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안정화 사역의 은혜 주시고 교회의 언론 및 법적 문제 해결해 주소서.
- 성도의 시험과 악, 사단의 역사로 부터의 보호해 주소서. 교회내 쓴뿌리, 당짓는자, 이단자, 경망스러운자, 거역하는자, 반항하는자, 반역자, 다른권위자, 교만한자, 교회를 임의로 떠나는 자 등이 없게 하시고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 즉각 치리하여 주시사 악행을 그치게 하소서. 성령께서 불담되어 지켜 보호해 주소서. 목사님께 강력한 치리와 수습의 은혜를 주소서
- 모든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들을 용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소서.
- 모든 성도의 축복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 2018년 개인의 기도제목과 소원을 응답하여 주소서.


보라 새 일을
이길로
made by musicday
G D Em F
보 라 새 일 을— 행 하 시 리 니—
C D G Am C/D
이 제— 곧 나— 타 내 리 라—
G Am6 B7 Em F
주 를 위 하 여— 지 으 신 백 성—
C D G Fine
주 의— 찬 송— 부 르 게 되— 리—
C D G
광 야 의 물 솟— 아 나 리 라—
C D G
사 막 에 꽃 피— 어 나 리—
C D Bsus4 B7 Em
이 전 일 들 을— 녀 희 는 기 억 치 말 며—
C Em Am7 CM7 Dsus4 D7 D.C. al Fine
옛 적 일 들 을— 생 각 지 도 말— 라—